

특별기고



강병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지난달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하였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무산 안타깝다

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즉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출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뜰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기업 고통 심화

또한 현재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 있다. 투자, 수출, 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주요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주로 외부적 충격에 기인하여 이의 개선과 함께 즉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자체의 노동정책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기업환경 약화와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 시기에 비해 미래 회복 전망도 어둡고 경제심리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하여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만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 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되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되었다.

새로운 임금 결정체계 필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노동계의 반복적인 극한 대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로 수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수당을 일괄처럼 폐지하거나 대안처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기고



김유기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칠월이라 맹추 되니 입추 처서 절기로 다. 화성은 서류하고 미성은 중천이라 늦더위 있다 한들 절서야 속일소냐.” ‘농가월경가 7월령’의 한 소절로 늦더위가 있다 해도 계절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이다. 벌써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立秋)’가 코앞이다. 옛 조상들은 이 무렵 김장용 배추와 무를 파종하며 가을을 대비한다지만,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요즘 정작 낱씨는 입추를 무색하게 하며 전국에 무더운 더위가 연

일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은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 편차가 크겠다”고 말하며 “태풍은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낱씨를 전망했다.

온난화 등 기온이상 현상으로 한반도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100여년 만에 2.9도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폭염일 수도 13.6일로 증가해 해마다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폭염 주의보란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라고 구분된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폭염일 때는 기만하지만 있어도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땀의 기화로 인한 발한이 시작되며, 근육은 이완되지만 호흡과 체표면적은 증가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입추(立秋)가 무색한 무더위

는 항상성 때문에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 땀이 갖은 애를 쓰는 것이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더욱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접수된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휴대하는 게 좋고, 가장 더운 시간인 12시부터 17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40% 이상이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56.4%가 50세 이상, 사망자는 75.9%가 장년과 고령층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환자를 발견한다면 우선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의복을 제거하는 등 폭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의식이 양호하면 음료나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다면 환자에게 음료나 물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119 구급차에는 폭염질환 환자를 대비하여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전해질 음료 및 물 등 온열환자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치료 가능한 병원의료이송이 가능하다.

뜨거운 여름날 탈수가 생기지 않게 자주 물을 마셔주고 폭염 특보 시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추가 지나고 보름 후면 처서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하루빨리 한풀 꺾이길 바라며 충분한 휴식으로 여유로운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사설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속도내야

노사생상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연 됐던 합작법인 투자자와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주주 간 협약체결과 주금 납입을 완료 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식에는 해당자가 여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배당 몫을 우대하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배당 몫은 당초 보다 낮추기로 합의 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선뜻 투자에 나서준 투자자들을 1·2대 주주가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이제 남은 것은 대표이사 선임과, 법인명칭

확정 등이다. 대표이사 등 합작법인의 임원 선임은 이달중 예정된 발기인 총회에서 논의돼 공식 발표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연내 공장 착공과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 돌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저비용 고효율 일자리사업이다. 고비용 저효율 고용구조에 발목잡혀 신용사 등 34개업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한다. 시는 투자자 협약 이후 1·2대 주주인 광주시(광주그린카진흥원)와 현대차가 여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배당 몫을 우대하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배당 몫은 당초 보다 낮추기로 합의 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선뜻 투자에 나서준 투자자들을 1·2대 주주가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이제 남은 것은 대표이사 선임과, 법인명칭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에 최선 다해야

광주는 유일하게 광역시 중 면세점이 없는 지역이다. 외국인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이 유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로운 해 광주를 찾는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의 일환이지만 투자기업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린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유치기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만 보더라도 시내면세점 유치는 시급하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았음에도 이들이 갈만한 면세점 하나 없다면 ‘국제도시 광주’는 허언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 먹고, 보고, 쓰고 갈 인프라를 마련하는 건 국제관광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시급하고도

긴요한 일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에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기업은 물론 신규 대기업들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성사 전망은 사뭇 어둡다. 기대를 걸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측은 광주시에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전했었으며, 신라면세점 또한 외국인 관광객 등 여려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마지막 남은게 전세계에서만 지난 민선6기 당시 복합랜드마크를 추진하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광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어렵게 따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지광장

선진 집회시위 문화 만드는 진도경찰

집회 시위 문화는 많은 변화 속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역사상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불법이 없는 집회는 최대한 보장했으며, 참가자 또한 성숙한 시민으로서 준법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경찰과 시민 모두 성장했다. 진도에서도 2019년에만 26건 집회가 개최, 2,8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 패러다임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 과정을 주최 측이 진행하도록 하여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진도경찰서에서는 이 ‘자율과 책임’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더 가까이에서 듣고 사전에 중재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

극 시행 중이다. 경찰서 정보기능 대화경찰관은 집회 주최자와, 경비기능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각각 소통해 애로 사항 및 미찰 등을 현장에서 청취, 집회 관리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 패러다임에 입각한 집회 관리와 모든 집회 현장에 ‘한국형 대화경찰관’을 배치시켜 최대한 자유롭게 집회를 보장하고 사전 경찰 활동을 통해 불법 집회를 미리 예방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진도경찰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진도경찰서의 집회시위 관리 노력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모범이 될 것이다. /진도경찰서 경비계 경장 변성진

‘태풍 8호 프란시스코’ 피해 미리 대비하자

지난해 이맘때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여름의 끝자락 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해마다 한반도는 7-9월경에 크고 작은 태풍들이 올라오고, 이때 지역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나 강풍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농작물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는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고 주택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간판이나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이나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

손에 대비해야 하며 건물의 간판 및 위험 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며 논둑은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기상 상황의 악화될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각종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인 가정에서 대비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는 사전에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 이면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내 가족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해에 대비해볼길 바라본다. /영양경찰서 정보보안계 경위 임석진

광복의 의미 되새기며 ‘노재팬’

기지사침



이보람 문화부 기자

광복절을 8일 앞둔 현재 국민들은 ‘노재팬’을 외치며 일본 불매 운동에 한창이다. 일본의 유명 의류 업체와 생활용품 브랜드, 맥주와 여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노재팬’은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사랑받은 일본 애니메이션 ‘라라랜드’의 개봉이 연기되고, 가수 윤종신은 일본 그룹 AKB48의 타케우치 미유가 참여한 신곡 발매를 미뤘다. 광주문화재단과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문화재단과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시민들과 광복의 의미를 공연과 전시로 되새김으로써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일 광복절 기념 특집 프로그램 ‘뮤지컬 길라쇼’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뮤지컬 ‘영웅’ 공연 실황을 중계한다. ‘썩은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뮤지컬 ‘영웅’은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중근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를 암살하는 내용을 다룬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집중 조명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면모와 운명 앞에 고

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심도 있게 담아낸 작품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의 세 번째 전시인 ‘광복과 혼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주둔하고,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선택 통치가 결정된 후 남북의 분열과 남한 내 좌·우 분열 양상을 살펴본다. 또, 해방의 소식을 우리 손으로 알리기 위해 광복 후 장간된 ‘독립신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이 제시한 해방 조국의 청사진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일본 불매 운동에 앞서 과거를 잊지 않고 광복을 되새겨 보는 것이 진정한 ‘노재팬’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